



# 蜂療와 蜂針療法에 관한 임상실험레 및 연구논문選集<5>

高 相 基 / 韓國蜂針療法研究會 會長, 國際蜂療保健蜂針學術研究會 副會長

## 5-1. 봉침의 반응과 면역(免疫)

..... (전호에 이어진 글입니다)

- 본 논문은 日本 渡辺孝 박사가 日本봉침지 4호, 5호, 6호, 7호에 걸쳐 독일의 필립 텔크(Philip Terch) 박사의 강의내용을 연재한 것임
- 번역=한국봉침요법연구회 부회장 박진순



고상기회장

다행스럽게도 그 환자의 고용인의 한사람이 꿀벌을 키우고 있었으므로 다음날 저는 그 고용인에게 봉침을 자침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고 불과 3주일 후에 거의 죽음이 확실시되었던 이 환자는 몇 년만에 처음으로 병상을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환자는 아주 좋아졌으나 면역이 완전히 생기기 전에 타지방으로 이사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 환자를 진단했을 때에 그녀의 류마치스는 완전히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들리던 심장의 이상음도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12년 전에 한 여성환자로부터 왕진을 부탁 받았는데 이 환자는 수개월 전부터 관절류마치스와 심장장애로 높은 열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더 이상 약을 복용할 수가 없었으므로 봉침요법을 받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환자에게 총 600마리의 봉침을 자침하여 결국 완치 시켰습니다. 그 환자는 저의 치료를 받기 전에는 반복하여 심한 류마치스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저의 치료를 받은 후로 10년 동안 날씨와 기온이나 기압이 어떤 상태로 변화

여도 류마치스가 재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거의 치료 사례를 더이상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려는 환자는 저의 진찰을 받기 전에 50년이란 세월동안 근육류마치스와 관절류마치스로 병마에 시달

리며 고생한 여성입니다. 제가 그 환자를 진찰했을 때는 그 환자에게 새롭게 류마치스성 소모증(消耗症)과 심장관막증이라는 병까지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숨이 차고 고열이 나는 것 외에도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고 특히 심장의 통증까지 있었으므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환자는 더 이상의 약물요법을 견딜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한 환자에 대해서 저는 신중하게 봉침요법을 여름내 계속하였는데 이후 심장의 이상음도 들리지 않게 되었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 이 환자에게 2,000마리의 봉침을 자침하였습니다.

## 5-5. 근육류마치스

근육류마치스는 봉침요법으로 가장 치유율이 높은 병종의 하나입니다. 급성·진성 근육류마치스 모두 치유 가능하며 아무리 오래 지속된 근육류마치스라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1

879년에 저는 이 분야에서 가장 흥미있는 사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환자는 1877년에 격렬한 근육류마치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정성스러운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심장부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두근부(頭根部)의 관절과 근육이 몹시 아파서 머리와 근육이 굳어지고 그 외에 호흡곤란조차 있었던 것입니다. 흉곽(胸廓)이 움직여지지 않게 되고 마치 투구를 쓴 것처럼 보행시 고통을 느끼고 다리를 끄는 형편이었습니다. 내가 봉침요법을 권하였더니 그는 “아무쪼록 좋으실 대로 하여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도 헛 일인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저는 실험재료가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여름동안 1,000마리의 봉침을 자침하였으며 가을에는 그가 등산을 갈 정도로 그의 상태는 호전되었으며 그해 겨울에는 예전에 즐기던 스케이트를 다시 타게되고 몸 상태가 완전히 예전에 건강했을 때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통증이 다시 왔기 때문에 150마리로 봉침요법을 계속하였더니 고질병이던 근육류마치스가 결국 완전히 완치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결혼하여 수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병(근육류마치스)에 대해서 더 많은 치료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83년 60세의 남성이 외투도 입지 않고 마차를 몰고 많은 땀을 흘리고 나서 심한 감기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중증의 근육류마치스에 걸렸으나 다행히 관절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그를 만난 것은 8월 12일이었고 제가 진찰한 결과 그는 상당히 훌쩍해졌고 식욕부진에 열이 있고 계속적인 통증으로 며칠씩 잠을 못 자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환자는 손의 힘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글을 쓸 수도 없었고 수저도 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심한 경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의 연령이나 병의 증상을 봐서는 병의 완치 여부가 확실치는 않았지만 봉침요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치료불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솔직히 저자신도 그다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신중하게 봉침요법을 시작하였고 160마리의 봉침을 사용하였을 때 비로소 최초의 부기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2주일이 지나자 열도 내리고 식욕도 회복하여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통증도 참을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 졌습니다. 11월 15일까지 봉침을 1,000 마리를 자침하였고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비 상태는 아직 약간 남아 있었고 이것은 감응전류요법(感應電流療法)으로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해 그는 근육류마치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로 100마리의 봉침요법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환자는 그 후 25년이나 더 생존하였고 류마치스 재발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 5-6. 만성(慢性)류마치스의 치료사례

봉침요법은 만성류마치스에 대해서도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성류마치스라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관절에 한정되는 것인데 많은 사례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생 처음 봉침요법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환자는 철도선로공으로 29세의 남성으로 몇 번이나 류마치스에 시달려온 중증환자였습니다. 1879년 5월 상순 그는 두 무릎관절에 극심한 염증이 생겨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하고 있

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음해 1월에 저는 아파트 지하의 방에 누워있는 그를 왕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와의 첫 대면이었는데 처음 보는 그는 애처롭게도 훌쩍하게 여위어 있었고 발열과 발한(發汗)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양 무릎은 관절부의 침출물(浸出物) 때문에 부어 있었고 몹시 아프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계절적으로 봉침요법이 좋지 않을 때였으나 처자가 있고 직장에서 해고될 우려가 있는 그가 가엾고 딱해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곧 봉침요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월 17일 까지 봉침 70개를 자침하였지만 전혀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증상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추위 때문에 3월 6일까지 봉침요법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동안 다른 약물 요법을 여러 가지 시도해 봤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 다시 250 마리의 봉침을 자침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부기가 나타났고 4월 말에는 처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침대를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봉침요법은 5월 말까지 계속하였는데 6월 1일에는 그의 직장복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비번근무시에는 저에게 와서 11월 말까지 다시 1,000마리의 봉침을 맞고 완전히 류마치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후 5년 후에 그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류마치스성 심낭염(心囊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100마리의 봉침을 맞고 깨끗하게 완쾌하여 그 이후로 다시 재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만성류마치스에 대해서 한 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제가 치료한 가장 중증의 경우로 봉침요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 환자는 43세의 여성인데 1886년 8월초에

저에게 왔었습니다. 이 환자는 6년간이나 류마치스로 고생하고 있어서 여러 의사의 치료를 받고 여러 곳의 온천에 다녔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해골과 같이 피골이 상접하였고 그녀의 관절은 전부 매우 부어 올라서 굽어져 있었고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밤에도 잘 수 없기 때문에 대단한 고통을 참으면서 침대에서 의자로 이동하거나 또 침대로 왔다갔다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동작을 하는 것이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봉침요법을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일 정도였습니다.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그 환자에게 1,700개의 봉침을 자침하였고 그 결과 이 환자는 완쾌해서 마부르구(제가 살고 있던 곳)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으며 다음해 봄에 그녀는 또다시 마부르구로 돌아와서 다시 300마리의 봉침을 맞고 난 후 썩은 듯이 병이 완쾌되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건강을 한 폭의 그림에 담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관절의 부자유는 약간 남아 있었지만 걸을 수 있었고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후로 류마치스가 다시 재발한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아쉬움은 좀더 일찍 봉침요법을 받았더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 5-7. 류마치스성 관절염도 낫는다

의학의 급속한 진보 덕분에 소위 “류마치스성 질환”의 정체가 점차 해명되었습니다. 이전에 기형화 관절통풍(畸型化關節通風)이라고 부르는 것은 현재 류마치스성 관절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이 병은 과거에는 다른 모든 류마치스성 질환과는 별도로 취급되어 왔었습니다. 이 류마치스성 질환은 종래의 치료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효과가 없었습니

다. 이 병에 걸렸다면 장기간 고생한 끝에 기형화되는 것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환이라도 너무 오랫동안 방치만 하지 않으면 봉침요법으로 틀림없이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취급한 다수의 사례 중에서 특히 전형적인 경우만을 소개합니다.

1900년 2월에 젊은 여성환자가 손가락의 모든 관절에 부기가 있었습니다. 환자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동상에 걸린 것과 같아서 몹시 아프다고 했고 별로 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수족의 관절이 모조리 부어오고 그 부기가 목 주위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흉부(胸部)가 찌르는 것과 같이 아프고 숨쉬기에도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많았고 1900년 초에는 집 밖으로 나가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까지 하였다고 했습니다. 열기요법(熱氣療法)을 포함하여 온갖 치료를 시도하였지만 하등의 효과도 없었습니다. 2년이 상이나 고생한 끝에 1902년 3월에 저의 치료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이 환자는 쇠약해질 때로 쇠약해져서 빈혈 증세도 있었으며 수족의 모든 관절, 특히 상지(上肢)의 관절이 굵어져서 고통을 느끼게까지 되었습니다. 손과 팔의 관절은 이미 이상스럽게 굵어 있어서 팔꿈치를 바르게 펼 수 없는 상태였고 무릎근육은 가끔 경련을 일으켜서 다리를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또 흉부의 우측에는 심한 침출물이 있었고 뇨(尿)에는 대량의 단백(蛋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월말에 처음으로 이 환자에게 봉침요법을 실시하였고 300마리의 봉침을 자침한 후 비로소 부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되어 부기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기가 생겼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되다가 11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환자는 5,600마리에 달하는 봉침시술을 받았습니다. 치료 중에 통증은 점점

가벼워 졌고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도 완전한 면역이 생기도록 수주일 을 계속하여 봉침요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해 6월에는 뇨(尿)중의 단백은 없어졌고 침출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봉침요법을 받았는데 9월말에는 통증은 완전히 없어지고 몇시간씩 산책을 할 수 있게되었고 기분도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 환자에게 재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더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였고 그 환자는 다음해 겨울에 감기에 걸린 것 말고는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03년 3월에 아주 경미하게 증상이 재발하였지만 매우 건강해 보였고 증상도 불과 몇마리의 봉침으로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해 여름 내내 그녀는 1,000마리의 봉침요법을 받았으며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매월 일정한 수일간은 손관절의 수개소에 가벼운 부기가 왔다가 2~3일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선천적으로 류마치스성 체질을 가지고 있고, 그의 류마치스가 지극히 완고한 것이라는 증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는 해마다 그의 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지극히 흥미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봉침요법은 류마치스성 신경통의 경우에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고 이 분야에서는 다수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방치하였던 것보다는 적시에 봉침요법을 받았을 경우가 훨씬 치료하기 쉽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히 주의하여 주실 것은 봉침요법의 적응증은 순수한 류마치스성의 신경통과 염증에 있지 보통의 신경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호에 계속